

1억3900만 개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두 기관의 분석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재생에너지 확대 시 에너지 관련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2020)에서도 재생에너지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증명된 바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10억원을 투입할 때 풍력에서는 6.3명, 태양광에서는 6.1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그러나 원전은 풍력보다 1.4배, 태양광보다 1.3배 적은 4.6명이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화석연료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 10억원 투입 시, 석탄은 1.1명, 가스는 2.4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풍력발전의 적극적인 보급을 통해 풍력발전이 가진 일자리 창출 잠재력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 따르면, 2021년 풍력발전의 설비용량은 전년 대비 64MW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미미한 보급 실적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도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2021년 기준으로 풍력 산업 종사자 수는 2,033명으로, 2020년의 2,088명 대비 불과 245명만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의원영 의원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태양광,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산업의 중심 일자리가 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철지난 원전 르네상스에 올인해, 한국기업들이 국내 태양광 공장 가동을 축소, 중단하고 오히려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이번 국정 감사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복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1) 산업부 제출자료

1. 발전원별 종사자수 현황

□ 발전원별 종사자수 현황

- (원전) 3.5만명
 - * 원자력산업실태조사('21년)
- (석탄) 1.3만명
 - * 각 발전사 취합('22년)
- (신재생) 14.0만명
 - *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21년)

(붙임2) 양의원영 의원실 추가 조사자료

발전원	종사자수	출처
원자력	35,104명	한국원자력산업협회. (2022.12.). 2021년도 원자력산업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p88
신재생에너지	140,953명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2022). 2021년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p22
재생에너지	139,097명	연료전지 1,856명 제외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2022). 2021년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p45
태양광	124,679명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2022). 2021년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p45